

소득양극화에 대한 한국인의 입장과 정부정책에 대한 판단*

김 동 수 김 욱 환 정 태 연 최 영 진†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사회적 특징(소득수준, 지지정당(보수 대 진보), 정치적 가치, 자본주의와 평등주의 가치)이 소득양극화에 대한 입장과 정부정책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613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참가자들의 소득양극화에 대한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참가자를 이러한 각 변인의 점수로 나눈 두 집단(고집단 대 저집단; 피험자 간)과 소득양극화에 대한 두 가치(진보 대 보수; 피험자 내) 등 혼합설계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이 판단하는 정부의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위의 각 변인의 점수로 나눈 두 집단(고집단 대 저집단; 피험자 간), 두 정부(실용정부 대 참여정부; 피험자 내), 소득양극화 정책(진보 및 보수; 피험자 간) 등 혼합설계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인은 진보적 정치적 가치를 가지거나, 자본주의 가치를 반대하는 한국인이 소득양극화 진보적 가치를 더 지지하였으며, 보수정당을 지지하거나 평등주의 가치를 반대하는 한국인이 소득양극화 보수적 가치를 더 지지하였다. 또한 지지정당에 따라서 참여정부의 소득양극화 진보적 정책과 보수적 정책 판단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가 한국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소득양극화 문제의 합의적 의사소통을 이루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소득양극화, 빈부격차, 정치성향, 자본주의, 평등주의, 정당, 소득양극화 정책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9-328-B00093).

† 교신저자 : 최영진,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E-mail : yjchoi@cau.ac.kr

소득양극화 문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인 이슈다. 특히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고조된 사회적 불안과 위기의식으로 인하여 정부정책에서부터 대중문화에 일 반에 이르기까지 사회영역의 전반에서 소득양극화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소득격차에서 비롯된 소득양극화 문제는 더 이상 경제 분야에만 그치지 않고, 교육, 의료, 정치 분야에 이르기까지 사회전반에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KNN 보도, 2013. 3. 14.; 서영희, 허우정, 김은주, 2007; 경기일보, 2012. 5.27) 최근 소득양극화의 실태와 그 효과를 다룬 지난 연구들에 따르면(강승복, 2004; 김경모, 2001; 김대일, 2007; 김병조, 2007; 김상호, 김병선, 2006; 김홍중, 2006; 남상호, 임병인, 2005; 노연희, 김명연, 2011; 박경숙, 2008; 박세경, 2005; 신원철, 2005; 이성용, 방하남, 2009). 이러한 양극화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급격하게 팽창한 소득양극화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해결에 대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에 직면해 있으며, 건설적인 논의를 통한 합의적 해결방안의 도출에 이르는 길은 요원한 상태이다.

소득양극화에 대한 인식 연구

최근의 소득양극화 연구는 경제적 통계학적 관점에서 사회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문제를 접근하기 보다는 소득양극화와 관련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구조와 의식적인 측면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이해에 접근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김상호

와 김병선(2006)은 경제적 불평등을 생활양식의 불평등으로 볼 때 양극화의 문제는 단순한 소득과 재산의 문제를 넘어서서 복합적인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이며, 이는 삶의 일상적 영역에서 등장하는 라이프스타일과 관계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경숙(2008)은 불평등에 대한 실제적 경험과 불평등을 인식하는 것 사이에는 다양한 적응과정이 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경제적으로 불평등하더라도 그 밖의 사회관계, 문화, 심리적 요인들에서 심각한 박탈경험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불평등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계층이나 계급의식, 사회적 욕구를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계급지위를 몸과 정신, 욕구에 체화되도록 훈련하고 타인과 구별 지음으로써, 불평등의 지배는 주체가 계급 정체성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재생산된다(홍성민, 2000; 장미혜, 2002; 신명호, 2006). 즉 소득양극화 문제는 단순히 사회구조가 개인의 삶의 밖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 안에서 행위, 의식, 욕구, 도덕 감정들이 경험되고, 해석되면서 심리적 과정 안에서 재생산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심리학분야에서도 소득양극화의 문제와 관련한 연구가 소수 진행이 되었는데, 특수한 계층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 박상규, 이병하(2004)의 연구와, 사회경제적 현상이 가족 및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 조혜자, 방의정(1998)의 연구가 소득과 개인의 심리적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심리적 요인들이 어떻게 사회적 인식을 구성하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소득양극화 문제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1994년도에 실시한 한덕웅

(1994)의 연구에서도 이미 조사대상자의 45.8%가 부유층에 대한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으며, 2004년도에 실시한 김의철, 박영신(2004)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84.9%가 한국경제의 불평등의 문제를 지적하여서 소득양극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문제의식이 점차 고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김동수, 김옥한, 이상현, 정태연(2011)의 연구에서는 일상 경험 속에서 구성되어진 한국인들의 소득양극화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로 한국인들이 소득양극화에 대한 인식을 일상 경험 속에서 어떻게 구성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유형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소득양극화의 문제가 단지 경제적 측면에서 실제적인 소득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구성원들의 사고, 가치, 행위, 의식체계를 통괄하는 문화 격차를 야기하는 대단히 복잡한 층위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들이 소득양극화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증진시키지만 아직 탐구해야 할 영역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 중에서 가장 탐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한국인의 소득양극화에 대한 인식이 한국사회를 이루는 가치 및 의식체계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소득양극화에 대한 사회적 일반 인식이 구성됨에 있어서 단지 경제적 소득이나 사회 구조와 같은 실질적인 현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문화적 현상을 포함하는 의식체계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의식체계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담론들 간에 관계 속에서 소득양극화의 의미가 구성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소득양극화에 대한 인식은 정치적 가치체계라든지 한국인들의 소득분배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적 관념이나 평등에 대한 관념,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 등과 같은 인식체계와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

특히, 소득양극화의 문제는 사회적 자원에 대한 배분과 형평성에 대한 정의적 차원 속에서 각 사회 구성원 주체의 실천적 참여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한, 이 문제는 사회적, 정치적 패러다임을 이끄는 담론의 문제와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치적 담론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정하는 학문분야에서조차 소득양극화 연구자들의 인식체계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김동수, 김옥한, 이상현, 정태연(2011)의 연구에 의하면, 국내에 소개된 많은 연구들이 진보적 입장과 보수적 입장 사이에서 소득양극화의 원인 및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먼저, 연구자가 진보적 가치에 일관된 입장을 취하는 경우에는 소득양극화의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자 하며, 사회구조적 문제점이 소득불평등의 원인이고, 소득불평등의 구조를 개선시킴으로서 양극화 현상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¹⁾. 이러한 입장으로 분류될 수 있는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소득양극화의 원인을 잘못된 사회 및 경제구조를 지적하면서, 이로 인하여 경제위기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소득양극화와 실업을 심화시켰고, 중국에는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양극화 현상은 미래 통합한국사회의 전망을 어둡게 하며 사회전반의 분위기를 퇴조시킴으로, 정부와 사회가 사회구조의 변혁 및 사회복지 향

1) 정치적 담론에 의하면 소득양극화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진보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을 통해 소득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류정순, 2005; 신동면, 2006; 신명호, 2005; 신명호, 2006; 우재은, 2003)

한편, 보수적 입장과 일관된 연구의 경우에는 소득양극화의 원인에 사회구조적 불균형의 문제를 강조하기 보다는 이는 자본주의사회에서 필연적인 현상이며, 소득의 양극화 현상보다는 빈곤층이 증가하는 현상을 더욱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의 해소보다는 시장경제를 활성화 시켜 빈곤층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러한 입장과 일치하는 연구들 중에서는 그러한 잘못된 사회구조로 인한 경제위기-소득격차-사회양극화-사회갈등으로 이어지는 도식은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으며(김상호, 김병선, 2006; 안중범, 석상훈 2006), 사회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응해야함을 주장하면서, 정부나 사회의 분배정책에 의한 적극적인 개입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입장에서는 국가나 사회의 개입으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식보다는 고성장 시장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로 절대적 빈곤층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유경준, 2007; 유종일, 하준경, 2006; 안중범, 석상훈 2006).

소득양극화의 이러한 진보-보수적 가치 및 입장은 정치적 맥락에서 훨씬 더 잘 변별된다. 안중훈과 석상훈(2006)의 연구에 의하면, 진보와 보수적 정치성향을 대변하는 참여정부와 실용정부간의 소득양극화에 대한 정책차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양극화 실태에 대한 각 정부의 관점, 양극화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점은 앞서 살펴본 소득양극화의 진보적 입장과 보수적 입장의 차이와 동일한 것이다.

즉 참여정부는 한국에 소득양극화가 심각한 문제이고 사회구조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소득양극화가 심화되었으며, 따라서 제정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 부동산 투기관리, 분배위주의 정책의 지향성을 보인다. 반면에 실용정부는 소득양극화가 심각하지 않으며, 경기침체가 양극화의 원인임으로 정부 및 사회의 구조조정과 성장을 통한 분배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이지호(2009)의 '정당 위치와 유권자 정향의 연구'에서 진보 및 보수 개념을 관별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정치적인 보수적 정책에 시장경제와 생산성과 성장 그리고 진보적 정책에 조정경제와 복지국가확대가 범주로 묶였다. 이는 정치적인 성향을 구성하는 내용 중에서 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소득양극화의 주요 인식과 일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양극화에 대한 입장이 일반적인 한국인들에게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특히 그러한 인식구성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회적 인식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의 소득양극화 정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이와 관련해서 제한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연구들은 외국에서 진행된 정치학이나 사회학 분야의 연구들일 것이다. 정치학 연구들에서는 소득 불평등이 진보·보수로 나뉘어지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양극화를 가져오거나, 자유주의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는 일반적인 경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Garand and Lemieux, 2008; Ladewig, Best and Robert, 2009). 연구자들에 의하면 1970년대 이후로 미국에서는 소득격차가 의회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McCarty, Poole, and Rosental 2006), 고소득자가 공화당에 투표를 하는 반면에 저소득자가 민

주당에 투표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Bartels 2008; Gelman 2008; Gilen 2005). 따라서 정치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소득을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가정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소득분배를 지향하는 진보적 정당을 지지하는 반면에 부유한 사람들이 보다 보수적인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Lipset et al, 1954).

이러한 실증연구들을 통해서 소득양극화에 대한 인식이 실제적인 소득과 정당지지 및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연관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소득과 정치성향²⁾이 반드시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고들도 있다. Huber와 Stanig(2007)에 따르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보수정당을 지지하거나 부유함에도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다수의 미국인이 존재함을 밝히면서 이러한 원인에 대하여 지지

정당을 결정하는 데에는 소득이외에도 보다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고 있다. 더구나 진보와 보수를 대변하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당제도가 오랫동안 뿌리 내려온 미국에서조차 시민들이 진보적 또는 보수적 정책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Levitan & Miller, 1979). 한국에서도 진보 및 보수적 가치가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국내 연구들을 고려하여 볼 때(최석만, 국민호, 박태진, 한규석, 1990) 정치적 이데올로기 성향과 소득의 관계에 대해서 확정하기 어려운 측면을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소득양극화 입장과 실제적 소득, 그리고 정치적 이데올로기 성향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소득양극화에 대한 진보 및 보수적 입장은 경제적 관념 및 자본과 분배에 관련된 담론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적 가치 혹은 평등주의적 가치는 소득 및 사회적 경제적 자원의 분배에 대한 문제들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자본주의적 가치는 자유경쟁시장의 원리 속에서 소득의 분배 문제보다는 시장의 성장을 더 지향하는 반면에, 소득평등주의는 소득의 공평한 분배를 지향한다(Romano & Leiman, 김옥, 2006). 따라서 이러한 자본주의적 가치 및 평등주의적 가치로 구성된 사회적 담론 속에서 한국인들은 공정한 소득 및 분배 방식에 대한 정의적 관념과 소득양극화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관념을 구성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담론 속에서 구성된 한국인들의 소득양극화에 대한 인식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인식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것이다. 특히 한국의 정치의 구조적 측면에서 일반적인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의 충분한 합의적인

2) 진보 보수의 개념은 시대적 흐름과 상황적 변화에 따라 변하는 매우 자의적이고 가변적이며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럼에도 진보와 보수의 개념을 현재 한국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에 대해서 소득과 경제에 관련한 부분 이외에서 쓰이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보수주의는 개인들의 자유로운 참여와 다수결을 보장하는 선거제도의 정당성을 중요시하는 반면에, 진보주의는 소수지배집단에 의해 구조적으로 억압당하고 있는 것을 해방시키고 대중의 정치적 의지가 결집한 사회주의 정당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보수주의자들은 인간 개인의 능력의 차이를 강조하는 반면에 진보주의자들은 능력보다는 모든 인간의 동등한 참여를 강조한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이 뚜렷하지는 않은데, 보수주의는 친숙한 것에 대한 집착과 새로운 것에 대한 불신, 전통주의를 의미하는 반면에 진보주의는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 및 혁신을 강조한다(최석만, 국민호, 박태진, 한규석, 1990).

의사소통과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시행되기 보다는 엘리트적 행정관료와 해당기관을 중심으로 독단적인 의사결정구조 속에서 일방적인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양재인, 2007, 박영민, 2009), 그나마 한국에서 국민이 정책에 대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는 선거와 투표 행위를 통한 정당 정책에 대하여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경우 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과 국민들의 인식 간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할 것이며(박병석, 2006), 이는 앞서서 밝힌 한국사회의 소득양극화에 대한 합의적 소통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은 정당의 정책과 실제로 일반적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양극화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일관성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만일 소득양극화의 진보 혹은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이 지지하는 정당과 정당이 추구하는 소득양극화 정책에 대하여 일관적인 양상을 보인다면, 한국인의 소득양극화 정책에 있어서 국민들의 정책 요구는 비교적 민주적 선거방식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인들은 소득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정치적 이념적 원리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 및 인식을 구성한다고 가정할 수 있는 부분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가 일관적이지 않을 경우에 정부의 소득양극화 정책시행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경제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국인

의 소득양극화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러한 가치체계가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산물이라고 할 때, 국외의 선행연구들을 국내에 적용함에 있어서 모호성과 한계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국내의 실증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소득양극화에 대한 입장을 구성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민주적 선거제도와 정당정치를 통해 구현되는 정부의 소득양극화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인의 소득양극화에 대한 입장이 앞서 제기한 경제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담론 인식체계와 연관성이 있다면, 이러한 인식체계와 정부정책에 대한 판단에 관한 영향관계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과제

본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 소득양극화의 해결방안에 이르기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소득양극화 문제에 대한 합의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득과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에 직면한 한국인들이 어떠한 사회적 가치와 인식체계를 구성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은 소득양극화의 문제가 단지 실제적 소득과 분배에 관한 사회구조적인 현상일 뿐 만 아니라, 앞서 많은 연구자가 지적하였듯이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사회적 의식과 매우 연관이 깊다는 점과 관련된다(김상호와 김병선, 2006; 박경숙, 2008; 홍성민, 2000; 장미혜, 2002; 신명호, 2006). 따라서 기존의 소득양극화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주로 실제적 소득과 분배 양상에 대한 사회 구조적 측면에 대해서 경제적, 통계

적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였다면, 이제는 개인의 의식 속에서 구성되고 있는 소득양극화와 관련된 인식, 가치체계, 의미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득양극화 입장이 사회적 가치 및 인식 체계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소득양극화의 가치체계를 크게 진보적 가치와 보수적 가치체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때, 한국인들은 이러한 두 가지 대립적인 가치체계 중에서 어떤 가치체계를 지지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구성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점은 소득양극화에 대한 건설적인 합의과정이 결핍된 원인 중 하나는 정부와 일반 국민들 간의 충분한 소통의 부재일 것이다(국민일보, 2012, 1, 04). 정부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의사소통 및 이해의 부족은 국민의 요구를 간과한다는 점에서 정부정책의 시행에서의 비효율성을 의미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정부 및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측면으로 작용함으로써 합의적인 소통이라는 민주주의의 근본적 절차를 침식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박병석, 2006). 그러므로 소득양극화 정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한국인들의 사회적 인식체계와의 연관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한국인들의 소득양극화 정책에 대한 판단은 2012년 현재, 소득양극화 정책에서 진보 및 보수적 정책 가치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참여정부와 실용정부의 소득양극화 정책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살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을 정리하면 첫째, 한국인의 소득양극화 입장을 살펴보기 위해서 소득양극화의 진보 및 보수적 가치체계에 대

한 인식에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어떤 가치를 더 선호 및 지지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며, 이러한 소득양극화 입장과 여러 사회적 인식요인들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정부의 소득양극화 정책에 대한 한국인의 판단을 살펴보기 위해서 실용정부 및 참여정부가 수행하는 소득양극화 정책에 대해서 한국인은 각각의 정부가 소득양극화의 진보 및 보수적 가치에 얼마나 일치한다고 인식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에 대한 소득양극화 정책에 대한 판단과 사회적 인식요인들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들의 경제활동과 소득 및 분배에 관한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이 그들의 소득양극화에 대한 입장 그리고 정부의 소득양극화 정책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소득양극화의 입장을 구성하는 보편적인 사회적 담론체계와의 연관성을 확인함으로써, 소득양극화에 대한 인식의 보편적인 의미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양극화의 합의적 의사소통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체계를 통해 구성된 한국인의 소득양극화에 대한 입장과 정부정책 간의 간극을 확인함으로써,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방 법

대상

2010년 4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서울 및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변인	구분	명수	비율(%)		구분	명수	비율(%)	
성별	남	271	44.2	직업	공무원	48	7.8	
	녀	336	54.8		자영업	127	20.7	
	무응답	6	1.0		전문직	80	13.1	
	계	613	100		회사원	109	17.8	
세대	20 대	100	16.3		학생	135	22.0	
	30 대	145	23.7		주부	99	16.2	
	40 대	203	33.1		무직	8	1.3	
	50대이상	163	26.6		무응답	7	1.1	
	무응답	2	0.3		계	613	100.0	
	계	613	100		초졸이하	13	2.1	
소득	상	8	1.3		학력	중졸	37	6.0
	중상	87	14.2			고졸	323	52.8
	중	278	45.4	대졸이상		215	35.0	
	중하	152	24.8	무응답		4	0.7	
	하	5	9.0	계		613	100	
	무응답	33	5.4					
	계	613	100					

경기관에 거주하는 심리학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100명의 학생들에게 20대의 자료를 얻었으며, 이들에게 40, 50대에 대한 설문조사 과제를 통해서 얻은 550개의 설문을 합한 총 650개의 설문을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중에서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37개의 설문을 제외하고 613개를 분석하였다. 설문대상자의 인구학적 내용은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소득과 지지정당

소득과 지지정당을 묻기 위해서 각 단일문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소득은 하에서 상까지 5점 리커트 척도에 기입하게 하였으며³⁾, 지지정당의 경우 설문조사 당시 2010년 시점으로 보수정당계열인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와 진보정당계열인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중에 가장 지지하는 정당 한 개를

3) 실제 소득도 함께 기입하도록 하였으나 무응답이 많아서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소득만을 변인으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실제 소득에 대한 사회구조적 측면이 아닌 의식 및 심리적 측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자신의 소득이 더 본 연구와 부합된다.

택하도록 하였다.

정치적 가치⁴⁾

정치적 가치를 조사하기 위해서 McClosky와 Bann(1979)의 Conservatism-Liberalism Scale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에서 자유주의(+1) 혹은 보수주의(-1) 기술문에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총점이 0점 이상이면 진보주의 가치지향으로 그리고 0점 이하이면 보수주의 가치지향으로 정의하였다. 신뢰도는 .784로 나타났다.⁵⁾

자본주의 가치

자본주의 가치를 조사하기 위해서 McClosky와 Zaller(1984)의 Capitalist Values Scale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에서 자본주의 가치 지향(+1) 혹은 자본주의 가치 반대(-1) 기술문에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총점이 0점 이상이면 자본

주의 가치지향으로 그리고 0점 이하이면 자본주의 가치반대 지향으로 정의하였다. 신뢰도는 .752로 나타났다.

평등주의 가치

평등주의 가치를 조사하기 위해서 Kluegel와 Smith(1986)의 Egalitarianism and Inegalitarianism Scale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평등주의 가치를 묻는 4개 문항과 불평등주의 가치를 묻는 7문항으로 구성된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게 되어있다. 신뢰도는 .822로 나타났다.

소득양극화에 대한 입장

소득양극화의 원인 및 해결책과 관련된 진보적 가치를 기술하는 인식내용 5개와 보수적 가치를 기술하는 인식내용 5개를 선별하여서에 대한 기술문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기술문들을 얻기 위해서 먼저 현재 한국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득양극화의 원인 및 해결책에 대한 주요 가치들과 안종훈 석상훈(2006)의 소득양극화의 정부에 대한 정책차이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현재에 실질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소득양극화에 대한 가치 및 인식 내용들을 1차로 수집하였으며, 이러한 내용들 중에서 3명의 연구자가 모두 동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선별함으로써, 기술문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 기술문들은 조사 대상자가 총 10개의 지문에 대하여 본인의 인식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5점 리커트 척도 중에서 선택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소득양극화의 진보적 가치에 대해 높은 일치도를 보일수록, 소득양극화의 진보적 가치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그리고 소득양극화의 보수적

-
- 4)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치적 가치와 자본주의 가치 그리고 평등주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들은 외국의 척도들로서 이를 연구자들이 번안과 역번안의 과정을 통해서 문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 5) 이러한 서구의 자유주의에 대한 개념이 한국사회에서 진보주의적 개념을 측정하기에 적절한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 될 수 있다. 우선 미국의 경우 Liberalism이라고 표현되는 자유주의는 진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김비환(2005)에 의하면 자유주의는 크게 우익자유주의와 좌익자유주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자유주의는 평등과 복지를 강조하는 좌익자유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에서의 진보주의에 상응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자유 및 진보와 같은 개념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개념임으로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가치에 높은 일치도를 보일수록 소득양극화의 보수적 가치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참여정부와 실용정부가 소득양극화 진보 및 보수적 가치인식에 얼마나 일치하는지 5점 리커트 척도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참여정부에 대해서 소득양극화의 진보적 가치의 일치도가 높은 경우에 참여정부가 소득양극화의 진보적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참여정부에 대해서 소득양극화의 보수적 가치에 일치도가 높은 경우에 참여정부가 소득양극화의 보수적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실용정부에 대해서 소득양극화의 진보적 가치에 일치도가 높은 경우에 실용정부가 소득양극화의 진보적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실용정부에 대해서 소득양극화의 보수적 가치에 일치도가 높은 경우에 실용정부가 소득양극화의 보수적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종속측정치라고 할 수 있는 본인의 진보 및 보수적 가치에 따른 소득양극화 인식에 대한 일치도 2가지와 각 정부별 진보 및 보수적 가치에 대한 인식 일치도 4가지로 구성되어 총 6가지 측면에서 측정되었다. 각각의 신뢰도를 알아본 결과 본인의 소득양극화 진보적 가치에 대한 인식 일치도(.672), 보수적 가치에 대한 인식 일치도(.552), 참여정부의 소득양극화 진보적 가치에 대한 인식 일치도(.677), 보수적 가치에 대한 인식 일치도(.476), 실용정부의 소득양극화 진보적 가치에 대한 인식 일치도(.620), 보수적 가치에 대한 인식 일치도(.581)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기술문에 대한 내용을 부록 1에 제시하였다.

자료분석

먼저 소득양극화 인식에 대한 일치도를 종속변인으로 해서, 소득(고소득, 저소득), 지지정당(진보당 지지집단, 보수당 지지집단), 정치적 가치(진보적 가치, 보수적 가치), 자본주의 가치(자본주의 가치 지지집단, 자본주의 가치 반대집단), 평등주의 가치(평등주의 가치 지지집단, 평등주의 가치 반대집단)의 각 변인에 대하여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고(피험자간 설계) × 소득양극화 가치(진보적 가치, 보수적 가치; 피험자내 설계)의 요인설계로 반복측정 변량분석을(repeated ANOVA) spss 15.0 프로그램으로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소득양극화 인식에 대한 일치도를 종속변인으로 해서, 소득(고소득, 저소득), 지지정당(진보당 지지집단, 보수당 지지집단), 정치적 가치(진보적 가치, 보수적 가치), 자본주의 가치(자본주의 가치 지지집단, 자본주의 가치 반대집단), 평등주의 가치(평등주의 가치 지지집단, 평등주의 가치 반대집단)의 변인에 대하여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고(피험자간 설계) × 정부(참여정부, 실용정부; 피험자내 설계) × 소득양극화 가치(진보적 가치, 보수적 가치; 피험자내 설계)의 요인설계로 3원 반복측정 변량분석을(3 repeated ANOVA) spss 15.0 프로그램으로 실시하였다.

결 과

소득양극화 입장에 미치는 영향요인

소득과 지지정당 요인을 포함하여 정치적 가치, 자본주의 가치, 평등주의와 같은 사회인

식 변인들에 대하여 각각 상위집단 및 하위집단의 두 집단으로 나누고, 각각의 변인들과 소득양극화에 대한 진보 및 보수적 가치에 따라 소득양극화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고소득 집단(소득: 상, 중상)과 저소득 집단(소득: 하, 중하)으로 소득 집단을 나누고, 소득과 소득양극화 가치(진보적 가치, 보수적 가치)에 따라서 소득양극화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소득요인과 소득양극화 가치요인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F(276, 1) = 2.473, ns$).⁶⁾

그리고 지지정당에 따라서 진보당 지지집단과(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보수당 지지집단으로(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나누고⁷⁾, 지지정당과 소득양극화 가치(진보적 가치, 보수적 가치)에 따라서 소득양극화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지정당과 소득양극화 입장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F(505, 1) = 47.629, p < 001$; 그림 1). 따라서 단순주효과 분석을 한 결과, 진보당 지지집단일 때, 진보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보수적 가치에 대한 인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F(257, 1) = 104.173, p < 001$), 보수당 지지집단일 때 진보적 가치와 보수적 가치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248, 1) = 1.937, ns$). 다음으로 소득양극화 진보적 가치에 대해서 진보당 지지집단과 보수당 지지집단의 인식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F(509, 1) = 2.738, ns$), 보수적

가치에 대해서 보수당 지지집단의 인식이 진보당 지지집단의 인식보다 높게 나타났다($F(512, 1) = 35.102, p < 001$).

다음으로 정치적 가치에 따라서 정치적 진보 집단(총점 0점 이상)과 보수 집단(총점 0점 이하)으로 나누고, 정치적 가치와 소득양극화 가치(진보적 가치, 보수적 가치)에 따라서 소득양극화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정치적 가치와 소득양극화 가치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F(565, 1) = 16.980, p < 001$; 그림 2). 따라서 단순주효과 분석을 한 결과, 정치적 진보 집단일 때 소득양극화 진보적 가치 인식이 보수적 가치 인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F(395, 1) = 95.140, p < 001$). 또한 정치적 보수 집단일 때도 소득양극화 진보적 가치 인식이 보수적 가치 인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F(170, 1) = 3.936, p < 05$). 다음으로 정치적 진보 집단이 보수 집단보다 소득양극화 진보적 가치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569, 1) = 24.294, p < 001$). 그러나 정치적 진보 집단과 보수 집단의 소득양극화

- 6) 각 사회인식 변인들에 대해서 소득양극화에 대한 입장에 따른 소득양극화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 사회인식 변인과 소득양극화 입장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각 사회인식 변인들의 주효과는 의미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만 살펴보았다.
- 7) 자료수집기간인 2011년 상반기 당시의 대표적 정당 및 정치세력 6개를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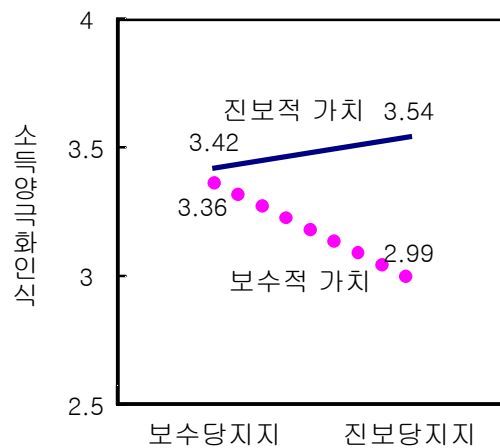


그림 1. 지지정당과 소득양극화 가치의 상호작용 그래프(숫자는 평균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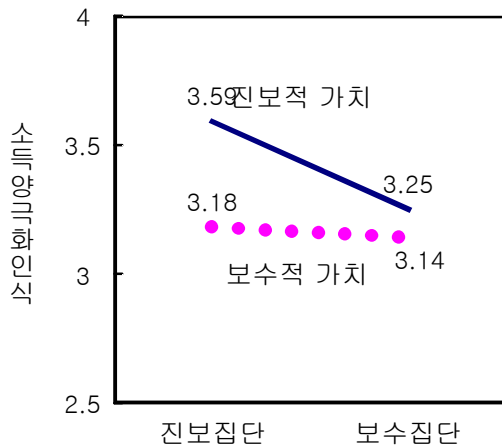


그림 2. 정치적 가치와 소득양극화 가치의 상호작용 그래프(숫자는 평균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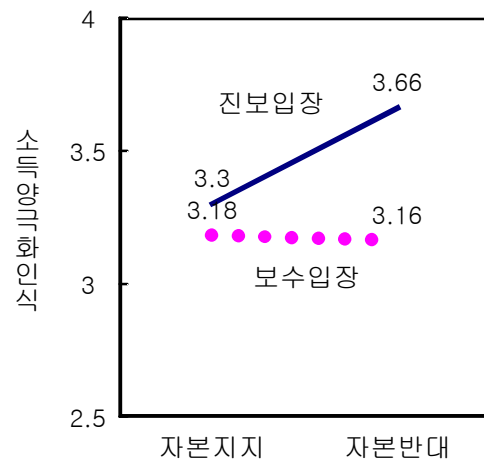


그림 3. 자본주의 가치와 소득양극화 가치의 상호작용 그래프(숫자는 평균점수)

보수적 가치 인식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571, 1) = .559, ns$).

다음으로 자본주의 가치 평균점수를($M = 1.50$) 기준으로 자본주의 지지집단과 반대집단으로 나누고, 자본주의 지지 여부와 소득양극화에 대한 가치에 따라서 소득양극화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자본주의 가치와 소득양극화 가치의 상호작용이 나타났다($F(563, 1) = 32.902, p < .001$; 그림 3). 따라서 단순주효과 분석을 한 결과, 자본주의 가치 지지 집단일 때, 소득양극화 진보적 가치 인식이 보수적 가치 인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F(274, 1) = 7.745, p < .01$). 또한 자본주의 가치 반대 집단일 때도 진보적 가치 인식이 보수적 가치 인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F(289, 1) = 101.837, p < .001$). 다음으로 자본주의 지지집단보다 반대집단이 소득양극화 진보적 가치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F(568, 1) = 33.120, p < .001$). 그러나 자본주의 가치 지지집단과 반대집단의 소득양극화 보수적 가치 인식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F(570, 1) = .100, ns$).

다음으로 평등주의 가치점수($M = 1.53$)을 기준으로 평등주의 지지집단과 반대집단으로 나누고, 평등주의 지지 여부와 소득양극화에 대한 가치에 따라서 소득양극화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평등주의 가치와 소득양극화 가치의 상호작용이 나타났다($F(563, 1) = 5.519, p < .01$; 그림 4). 따라서 단순주효과 분석을 한 결과, 평등주의 반대집단일 때, 소득양극화 진보적 가치 인식이 보수적 가치 인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F(264, 1) = 25.859, p < .001$). 또한 평등주의 지지집단일 때도 진보적 가치 인식이 보수적 가치 인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F(299, 1) = 62.458, p < .001$). 그리고 소득양극화 진보적 가치에 대하여 평등주의 반대집단과 지지집단의 인식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567, 1) = .033, ns$). 그러나 소득양극화 보수적 가치에 대해서는 평등주의 반대집단이 지지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F(569, 1) = 7.327, p < .01$).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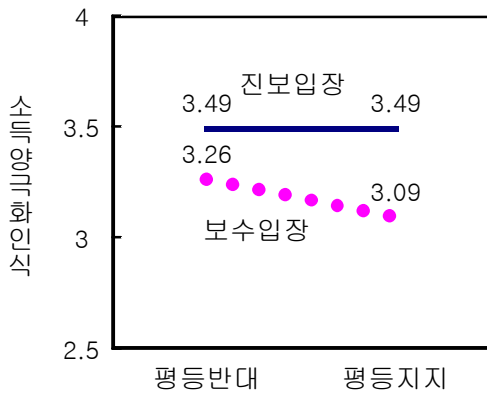


그림 4. 소득평등지지와 소득양극화 가치의 상호작용 그래프(숫자는 평균점수)

양극화 입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의미한다. 첫째, 한국인은 소득양극화 진보적 가치를 보수적 가치보다 지지하였다. 둘째, 한국인은 소득에 따라서 소득양극화 가치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셋째, 정치적 가치, 자본주의 가치, 평등주의 가치지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양극화 진보적 가치를 보수적 가치보다 지지하였으나, 진보적 정당을 지지하는 한국인은 소득양극화 진보적 가치를 보수적 가치보다 더 지지하는 데에 비해서, 보수적 정당을 지지하는 한국인은 진보적 가치와 보수적 가치 간에 차이가 없었다. 넷째, 진보적 정치 가치를 가지거나, 자본주의 가치를 반대하는 한국인이 그렇지 않은 한국인보다 소득양극화 진보적 가치를 더 지지하였으며, 보수정당을 지지하거나 평등주의 가치를 반대하는 한국인이 그렇지 않은 한국인보다 소득양극화 보수적 가치를 더 지지하였다.

소득양극화 정책 판단에 미치는 영향요인

소득과 지지정당 변인을 포함하여 정치적

가치, 자본주의 가치, 평등주의 가치와 같은 사회 인식 변인들에 대해서 각각 두 개 수준의 집단으로 나누고, 이러한 변인들 각각에 대해서 정부(실용정부, 참여정부)와 소득양극화 가치(진보적 가치, 보수적 가치)에 따른 소득양극화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즉, 각 정부의 정책에 일치하는 소득양극화 가치에 따른 인식을 살펴봄으로서, 각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인식 판단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분석의 주요한 목표이다. 분석결과 소득과 정치적 가치, 자본주의 가치, 평등주의 가치는 정부 및 소득양극화 가치간의 삼원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지정당에 대해서만 정부 및 소득양극화 가치와 삼원상호작용이 나타났다⁸⁾.

먼저 지지정당에 따라서 진보당 지지집단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보수당 지지집단으로(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나누고, 지지정당과 정부 및 소득양극화 가치에 따른 소득양극화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지정당과 정부 그리고 정부의 소득양극화 정책 인식의 삼원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⁸⁾으므로($F(493, 1) = 5.154, p < 05$; 그림 5, 6), 이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참여정부의 진보적 가치에 대해서 진보당 지지집단과 보수당 지지집단이 인식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F(503, 1) = .932, ns$), 참여정부의 보수적 가치에 대해서도 보수당 지지집단과 진보당 지지집단이 인식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500, 1) = 1.055, ns$). 실용정부의

8) 정책에 대한 판단인식에서도 각 사회인식 변인에 대해서 정부 및 소득양극화에 대한 입장에 따른 소득양극화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 사회인식 변인과 정부 그리고 소득양극화 입장의 삼원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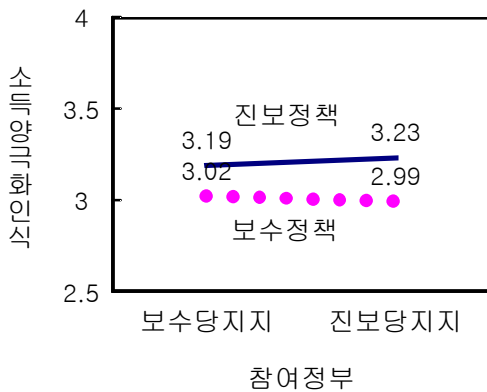


그림 5. 정부와 정당 그리고 소득양극화 가치의 삼원상호작용 그래프(숫자는 평균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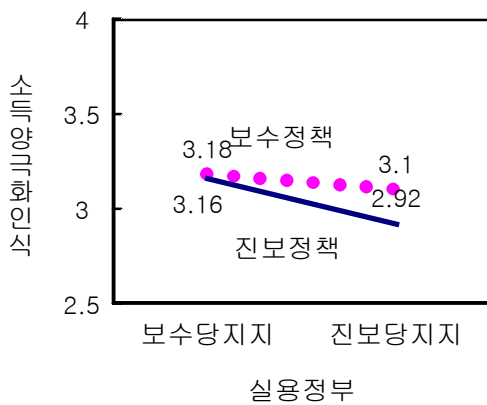


그림 6. 정부와 정당 그리고 소득양극화 가치의 삼원상호작용 그래프(숫자는 평균점수)

진보적 가치에 대해서는 보수당 지지집단이 진보당 지지집단보다 인식 점수가 높았으나 ($F(498, 1) = 12.885, p < 001$), 실용정부의 보수적 가치에 대해서 진보 및 보수당 지지집단의 인식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498, 1) = 1.640, ns$). 다음으로 진보당 지지 집단의 경우 참여정부에 대하여 소득양극화 진보적 가치인식이 보수적 가치인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F(255, 1) = 31.584, p < 001$), 실용정부

에 대하여 소득양극화 보수적 가치인식이 진보적 가치인식보다 높게 나타났다 ($F(253, 1) = 13.222, p < 001$). 보수당 지지집단의 경우 참여정부에 대하여 소득양극화 진보적 가치인식이 보수적 가치인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F(243, 1) = 15.707, p < 001$), 실용정부에 대하여 소득양극화 보수적 가치인식과 진보적 가치인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242, 1) = .318, ns$). 다음으로 진보당 지지집단의 경우 진보적 가치에 대하여 참여정부가 실용정부보다 인식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F(254, 1) = 33.629, p < 001$), 보수적 가치에 대하여 실용정부가 참여정부보다 인식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F(253, 1) = 4.512, p < 05$). 보수당 지지집단의 경우 진보적 가치에 대하여 참여정부와 실용정부의 인식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F(243, 1) = .316, ns$), 보수적 가치에 대하여 실용정부가 참여정부보다 인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F(241, 1) = 9.988, p < 01$).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정부의 정책 판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의미한다. 첫째, 한국인들의 소득, 정치적 가치, 자본주의 가치, 평등주의 가치는 참여정부와 실용정부의 소득양극화 진보적 가치 및 보수적 가치의 차이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한국인들의 지지정당에 따라서 참여정부의 소득양극화 진보 및 보수적 정책에 대한 차이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실용정부의 경우 보수당 지지자들이 진보당 지지자들보다 소득양극화 진보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진보당 지지자들은 참여정부가 소득양극화 진보적 가치를, 그리고 실용정부가 보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에 비해서 보수당 지지자들은 참여정부가 소득양극

화 진보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실용정부에 대해서는 소득양극화 가치의 차이를 인식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의 사회적 인식체계와 소득양극화 입장 및 정부의 소득양극화 정책에 대한 판단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실제 소득 및 지지정당 요인과 정치적 가치와 자본주의 가치 그리고 평등주의가치와 같은 사회적 인식요인들이 한국인의 소득양극화 입장과 정부의 소득양극화 정책 판단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소득양극화 입장과 정부의 정책 판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혔다. 첫째, 한국인은 소득양극화 진보적 가치를 보수적 가치보다 지지하였다. 둘째, 한국인은 소득에 따라서 소득양극화 가치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셋째, 정치적 가치, 자본주의 가치, 평등주의 가치 지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양극화 진보적 가치를 보수적 가치보다 지지하였으나, 진보적 정당을 지지하는 한국인은 소득양극화 진보적 가치를 보수적 가치보다 더 지지하는 데에 비해서, 보수적 정당을 지지하는 한국인은 진보적 가치와 보수적 가치 간에 차이가 없었다. 넷째, 진보적 정치 가치를 지지거나, 자본주의 가치를 반대하는 한국인이 그렇지 않은 한국인들 보다 소득양극화 진보적 가치를 더 지지하였으며, 보수정당을 지지하거나 평등주의 가치를 반대하는 한국인이 그렇지 않은 한국인 보다 소득양극화 보수적 가치를 더 지지하였다. 다섯째, 한국인들의 소득, 정치적 가치,

자본주의 가치, 평등주의 가치는 참여정부와 실용정부의 소득양극화 진보적 가치 및 보수적 가치의 차이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여섯째, 한국인들의 지지정당에 따라서 참여정부의 소득양극화 진보 및 보수적 가치에 대한 차이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실용정부의 경우 보수당 지지자들이 진보당 지지자들보다 소득양극화 진보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일곱째, 진보당 지지자들은 참여정부가 소득양극화 진보적 가치를, 그리고 실용정부가 보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에 비해서 보수당 지지자들은 참여정부가 소득양극화 진보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실용정부에 대해서는 소득양극화 가치의 차이를 인식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점을 가진다. 첫째,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소득양극화의 진보적 가치를 보수적 가치보다 더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개인의 문제이기보다는 사회구조적 측면에 원인이 있으며, 해결책으로 성장보다는 분배적 관점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실제적 소득이 한국인의 소득양극화 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경제적으로 빈곤하다고 해서 소득양극화에 대한 진보적 입장을, 그리고 부유하다고 해서 보수적 입장을 반드시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앞서서 경제력의 차이가 정치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Bartels, 2008; Gelman, 2008; Gilen, 2005)들과 상반되는 측면을 보이면서, 경제력의 차이보다 다른 복합적인 요인들이 정치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에(Huber and Stanig, 2007) 보다 일관적인

측면을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과 정치성향 그리고 소득양극화 입장간의 영향관계에 대해서 후속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제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점은 한국인들은 실제적 소득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담론 속에서 구성되는 인식체계에 의해서 소득과 분배의 공정성에 대한 관념을 구성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실제적 소득과 분배의 공정성 차원에서만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존의 소득양극화 문제해결 방식은 비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보다는 소득양극화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정부와 사회적 노력이 더 이상 실제적 소득과 사회구조적 측면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인식과 심리적 특성 같은 내적 요인에도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인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정치적 보수가치와 자본주의 지지가치 그리고 평등주의 반대가치와 같은 사회인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에서도 소득양극화 보수적 입장보다 소득양극화 진보적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사회적 인식체계와 소득양극화 입장 간에 비일관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의외의 결과이다. 이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설명이 가능한데, 한국사회에서 한국인들의 소득양극화의 진보적 입장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보편적인 관념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단지 소득양극화 보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체계가 비일관적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참고할 수 있는 사실은 2012년 대선에서는 이전의 선거 때보다 복지정책에 대한 공약의 비중이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의 한국사회에서 진보 혹은 보수적 가치와 관계없이 복지정책을 통해 소득을 공평하게 분배하고자 하는 관

점이 대표적인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전자의 해석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소득양극화의 진보적 가치가 한국사회에 보편적인 인식이라고 할지라도, 정치적으로 진보적 가치를 가지거나 자본주의 가치를 반대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한국인들보다 더 소득양극화 진보적 가치를 더 지지하며, 보수당을 지지하거나 평등주의를 반대하는 한국인들이 그렇지 않은 한국인들보다 소득양극화 보수적 가치를 더 지지한다는 세부적인 양상도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부의 소득양극화 정책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서 다섯째, 정부의 소득양극화 정책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실제소득 뿐만 아니라 정치적 가치와 자본주의 및 평등주의 가치와 같은 사회적 인식 요인들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정당지지 요인만이 정부의 정책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가능한 설명으로는 소득양극화 입장과는 다르게 정부의 정책 판단에서는 정치적 가치, 자본주의 가치, 평등주의 가치와 같은 사회적 인식요인이 영향력 있는 요인이 아닐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개입되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양극화 정책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와 이러한 요인들 간의 영향관계를 후속연구에서 밝힐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진보당을 지지하는 한국인들은 참여정부와 실용정부의 소득양극화 정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보수당을 지지하는 한국인들은 정부 간의 정책차이를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로서는 왜 보수당을 지지하는 한국인이 정부 정책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지 않거나 혹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적인 설명을

하기 어렵다. 단지 보수당을 지지하는 한국인의 경우 보수당을 지지하는 이유에 있어서 정부의 소득양극화 정책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소득양극화 정책 차이를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또 다른 설명방식은 이전의 연구에서 한국인들이 진보·보수 개념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최석만, 국민호, 박태진, 한규석, 1990)와 연관하여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향성이 보수당을 지지하는 한국인이 진보당을 지지하는 한국인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는 소득양극화의 진보적 가치가 한국인에게 보편적으로 지지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보수당을 지지하는 한국인들이 실용정부에 대해서도 진보적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가 나타나는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의 함의점들을 통하여 소득양극화에 대한 함의적 의사소통 및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소득양극화 진보적 정책을 보수적 정책보다 지지하고 있다는 본 연구결과를 볼 때, 앞으로 한국사회의 소득과 분배 관념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1970-1990년대의 고도 성장 기간동안 선성장 후분배 방식의 관념이 사회적으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IMF 이후에 급격화된 소득양극화의 심화가 한국인들에게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더 이상 이전의 소득과 분배에 대한 관념이 한국사회에서 지속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근 2012년 현재 대통령 선거기간을 전후로 본격

화되고 있는 복지사회 실현에 대한 논의가 단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수 있으며,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한국인의 요구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에서는 단지 득표를 위한 일시적인 선거 전략이 아니라,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인은 실제적 소득보다 사회 및 문화적으로 구성된 인식체계에 의하여 소득양극화의 원인 및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을 구성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실제 소득의 분배에 대한 정책 못지 않게, 의사소통을 통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의식 및 가치체계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는 2010년 당시의 진보 및 보수정권을 대표하는 참여정부와 실용정부에 대해서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양극화 인식을 살펴 보고자 했는데, 이러한 연구는 한국사회가 구체적 현실 속에서 당면한 사회 문제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문화적 가치체계들이 사회적 상황과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본 연구결과는 2010년도의 한국의 사회 및 정치적 상황을 더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제한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의 정치적 상황과 경제 및 사회적 주요한 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후속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사회적 인식들과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 없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단지 소득양극화 인식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

고 가정되는 경제적 가치체계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들로서 정치적 가치와 자본주의 및 평등주의 가치들만을 확인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한국인들의 배금주의 혹은 물질만능주의 한편으로 돈에 대해서 집착하면서도 돈에 관련된 것을 타부시하는 이중적인 태도와 같은 한국의 문화적인 특성들이 소득양극화에 대한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 혹은 공동체주의가 한국사회에서 두드러진 문화적 특성이라고 할 때(정태연, 2010) 이러한 특성이 소득의 분배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질적 탐색을 통해 소득양극화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인들의 사회 문화적 인식 특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한국사회의 사회 문화적 특성 및 사회인식 요인들과 소득양극화 인식간의 구조적인 모델을 밝힐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사회적 바람직성의 측면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소득 분배 문제와 같은 당위적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여자의 인식과 실제적인 태도 간에 불일치하는 이중적인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참여자의 소득양극화에 대한 인식 및 판단에 있어서 이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한국인의 소득양극화에 대한 인식적인 측면을 사회적 인식간의 연관 속에서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소득양극화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으로서 합의적 의사소통을 위한 방안과 정부 정책에 대한 제

언을 제시 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강승복 (2005). 우리나라 임금소득불평등도의 중장기적 변화. 노동리뷰, 19-29.
- 경기일보 (2012. 5. 27). 소득·교육·의료 갈수록 격차 농촌 양극화 심감.
- 김경모 (2001). 경남지역 소도시 청소년의 사회계층 현상에 대한 이해유형 탐구-경제적 불평등 개념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8(1), 243-269.
- 김대일 (2007). 불평등도 지표로서의 소득과 소비의 비교. 한국노동경제학회 30, 77-102.
- 김동수, 김옥환, 이상현, 정태연 (2011). 한국인의 소득양극화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인식유형.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7(4), 365-387.
- 김병조 (2000). 한국인 주관적 계층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34(2), 241-268.
- 김비환 (2005). 현대 자유주의의 스펙트럼과 한국사회의 보수와 진보. 철학연구 71, 27-57.
- 김상호, 김병선 (2006). 방송뉴스 분석을 통해 살펴본 양극화의 사회적 구성. 언론과학연구, 6(3), 99-140.
- 김 옥 (2006). 16대 대선에서 세대, 이념, 그리고 가치의 영향력, 이수영 편. 한국의 선거 5: 제 16대 대통령선거와 제 17세 국회의 원선거. 서울: 도서출판 오름.
- 김의철, 박영신 (2004).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표상과 신뢰: 청소년과 성인의 지각을 통해 본 토착심리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3), 103-129.

- 김홍중 (2006). 양극화 현상에 대한 각국의 인식과 정책적 대응. 한국응용경제학회, 8(2), 105-119.
- 남상호, 임병인 (2005). 소득-소비 분배구조 추이 및 양극화 분석. 경제학회지, 56(1), 219-247.
- 노연희, 김명언 (2011). 불완전고용의 선행요인 및 불완전고용이 조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7(1), 19-49.
- 류정순 (2005). 양극화 해소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절실. 노동사회지, 주장과 대안, 90-98.
- 박병석 (2006). 국회의 대국민 의사소통체계: 현실과 과제. 동북아논총, 38, 429-451.
- 박상규, 이병하 (2004). 빈곤층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813-824.
- 박세경 (2005). 성장과 분배에 대한 국민의식 설문조사 결과. 보건복지포럼, 27-38.
- 박영민 (2009). 한국 집권엘리트의 '순환 충원' 특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 동북아연구소, 24(2), 1-16.
- 서영희, 허우정, 김은주 (2007). 사회 양극화 현상에 따른 유아기 가정·교육환경 실태 및 요구도 조사. 유아교육, 16(2), 253-276.
- 신동면 (2006).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소득 양극화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사회이론, (1), 34-62.
- 신명호 (2005).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의 원인과 특징. 도시와 빈곤, 77, 5-27.
- 신명호 (2006).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빈곤. 아세아연구, 49(1), 7-34.
- 신원철 (2005).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임금소득불평등. 노동사회지, 3, 10-25.
- 안중범, 석상훈 (2006). 양극화의 정치왜곡과 정책부실. 한국응용경제학회, 8(2), 47-78.
- 양재인 (2007). 참여정부의 엘리트층원분석: 각료를 중심으로. 동북아 연구, 67-89
- 우재은 (2003). 빈부격차의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50-61.
- 유경준 (2007). 소득불평등 개념과 실태. 한국노동경제학회, 30, 103-138.
- 유종일, 하준경 (2006). 한국경제의 양극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한국응용경제학회, 8(2), 79-103.
- 이성용, 방하남 (2009). 성-연령별 중-고령 노동자의 취업 양극화 분석. 한국노년학회, 29(2), 593-610.
- 장미혜 (2002). 사회계층의 문화적 재생산: 대학 간 위계서열에 따른 부모의 계급구성의 차이. 한국사회학, 36(4), 223-251.
- 정태연 (2010). 한국사회의 집단주의적 성격에 대한 역사문화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3), 53-76.
- 조혜자, 방희정 (1998). 사회 경제적 변화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3(1), 1-15.
- 최석만, 국민호, 박태진, 한규석 (1990). 한국에 서의 진보·보수적 태도의 구조와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24, 83-102.
- 한덕웅 (1994). 한국 사회 문제에 대한 국민의 지각. 한국심리학회: 문화 및 사회문제, 1(1), 20-53.
- 홍성민 (2000). 문화와 이비투스: 부르디외와 유럽정치사상. 나남.
- KNN보도 (2013. 3. 14). 교육현장: 교육비 양극화 심각.
- Bartels, L. M. (2008). Unequal Democracy: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Gilded Age*.

-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arand, J. C., Lemieux, S. Q. (2008). Income Inequality, party Polarization and Roll-Call Voting in the U. S. Senate. *Paper presented at the Souther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New Orleans, LA.
- Gelman, A. (2008). *Red state, Blue state, Rich State, Poor Stat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ilen, M. (2005). Inequality and Democratic Responsiveness. *Public Opinion Quarterly* 69(5), 778-796.
- Huber, J. D., and Stanig, P. (2007). Why do poor support right-wing parties? *A cross-national Analysis. RSF Inequality Conference, UCLA*.
- KLuegel, J. R., and Smith, E. R. (1986). *Beliefs about inequality: American's views of what is and What ought be*. New York: Aldine de Gruyter.
- Ladewig, J. W., Best, S. J., and Robert, B. (2009). Income Inequality and Ideological Positions in the U. S. Congress. *APSA 2009 toronto meeting paper*.
- Levitan, T. E., and Miller, W. E. (1979). Ideological Interpretation of Presidential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3, 751-771.
- Lipset, S. M., Lazarsfeld, P. F., Barton, A. H., Linz, J. (1954). The Psychology of Voting: an Analysis of Political Behavior. *In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ed. Garder Lindzey. Cambridge, MA: Addison-Wesley, 1124-1175.
- McCarty, N., Poole, K. T., and Rosental, H. (2006). *Polarized america: the Dance of Ideology and Unequal Riches*. Cambridge, MA: the MIT press.
- McClosky, H., and Bann, C. A. (1979). On the reappraisal of the classical conservatism scale. *Political Methodology*, 6, 149-172.
- McClosky, H. and Zaller, L. (1984). *The American etho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Romano, R. (1975). *Views on Capitalism*, Encino. California: Glenco.
- 논문 투고일 : 2012. 10. 17
1 차 심사일 : 2012. 10. 22
게재 확정일 : 2013. 05. 09

Attitudes of Korean People Toward Income Polarization and Their Evaluation of Government Policies

Kim, DongSu

Kim, Okhwan

Jung, Taeyun

Choi, Young-jin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With questionnaires conducted for 613 adult Koreans in Seoul, the present study examined how their social features (income level, political party identification, political values, values of capitalism and egalitarianism) exercise influence on attitudes toward income polarization and their evaluation of government policies. Two groups of participants (high vs. low) for each social feature were formed first. Then their attitudes toward income polarization (liberal vs. conservative) and evaluations of policies (liberal vs. conservative) exercised by government (Participatory vs. Practical) were compared. Results indicated that liberal value was strengthened by liberal value, anti-capitalistic, and conservative value was strengthened by egalitarian values, and party identification. It was also found that party identification partial effect on the judgment of policies exercised by Participatory Government.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ir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and measures for communication constructive for settlement of income polarization were suggested.

Key words : income polarization, rich-poor gap, political inclination, capitalism, egalitarianism, political party, and policy evaluation, income polarization policy.

부 록

부록 1. 소득양극화 진보 및 보수적 입장 기술문

진보입장-1) 소득격차 혹은 빈부격차의 가장 큰 원인은 사회구조적 모순에 의한 것이다. 즉 잘사는 사람들은 좋은 교육여건, 풍부한 자본력 등을 통해 애초에 경제시장에서 경쟁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빈곤한 사람은 불리한 교육여건이라든지, 적은 자본력 때문에 높은 소득을 얻을 기회도 그만큼 적어진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며, 개인의 노력보다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소득이 결정된다.

보수입장-1) 잘사는 사람들과 못사는 사람의 중요한 기준은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성실하고 많은 능력을 가지도록 노력 했는가 이다. 즉,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그들이 노력과 능력만큼 혜택을 받고,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그들의 성실성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격차를 환경 탓, 주변 탓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회적 환경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진보입장-2) 소득양극화와 교육양극화는 분리될 수 없는 문제, 지금 아이들이 백미터 경주에서 같은 스타트라인 위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며, 시장 경쟁에서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함.

보수입장-2) 교육격차는 경쟁사회에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돈이 있고 없음을 기준으로 해서 단순화하는 것은 복잡한 교육의 문제를 올바르게 접근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갈등과 분열을 더욱 조장하고 심화시키는 접근이다.

진보입장-3) 부동산을 양극화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보고 고가 주택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세금 정책을 통해 방지해야 함. 또한 부동산 투기가 원인임으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보수입장-3) 특정 지역의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은 투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서울강남 지역과 같은 경우 우수한 교육여건 등으로 인해 만성적으로 실수요 자체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임.

진보입장-4) 현대의 경제 시장은 스스로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에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그것이 소득과 소비의 원천으로 작용하여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용을 통한 성장 전략을 취해야 함.

보수입장-4)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지만, 정부주도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아닌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함. 이를 위해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정책이나 규제를 없애야 하며,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함.

진보입장-5) 일자리 대책, 사회 안전망 구축, 미래 대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며 재원조달방법으로 증세와 재정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보수입장-5)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서 과감한 감세정책을 채택해야 하며, 정부 스스로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작은 정부'를 실현해야 한다.
